19-W\_인물로 본 한국사 2013-12815 이동주

**<사도> (2015)**

무수리의 자식으로 태어나 정통성의 깊은 한계를 지녔던 영조는 사도세자가 세자로서 완벽한 역량을 갖추길 바랐다. 세자가 왕의 업무를 대신 맡아보는 대리청정을 통해 세자의 역량을 시험했으나 이 시기는 세자와 왕의 사이를 돌이킬 수 없게 틀어지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 세자가 옳은 대답을 해도, 틀린 대답을 해도 왕의 기대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웠다.

옷을 입으면 왕을 만나러 가야한다는 공포에서 비롯한 세자의 강박은 한중록에 ‘의대증’으로 기록되어 있다. 옷을 입힐 때 옷이 살갗에 닿기라도 하면 칼을 꺼내 옷 입히는 궁녀를 해치는 등 세자의 정신은 돌이킬 수 없을만큼 피폐해진다. 이러한 파국은 임오화변으로 이어진다.

왕이 세자를 죽이기로 결정한 사실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쉬이 이해하기 힘들다. 영조의 그러한 선택에는 영조가 가진 컴플렉스가 작용했다. 천민이 자식이었다는 컴플렉스 이외에도 그가 배다른 자신의 형을 죽였다는 의심 또한 작용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가 남긴 ‘천의소감’을 통해 소문에 불과했던 그러한 의심에서 영조가 완전하게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왕이 되고 보니 노론이 자신을 꼭두각시 세우려고 했던 상황 속에서 그는 모든 이를 의심하고 홀로 서려 했고, 그의 정무에 대한 집착과 병적인 자기관리를 통해서도 이를 읽어낼 수 있다.

이렇듯 ‘왕’으로서 역할과 책임에 대해 나로서, 아버지로서의 그 자신보다 집착했던 영조가 세자를 ‘아들’로서 대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일은 이제 어렵지 않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사건으로 세계 역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유래를 찾기 힘든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는 극화하기에 너무나도 적절한 소재다.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 마치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 같기에 그다지 흥미가 가지 않았다. 역사적 배경에 대해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마주한 영조와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로 이어진 맥락은 오히려 신선했다.